

말로하는 안전말고 행동하는 안전하자

# 롯데건설(주) 안전관리팀

전사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발한 KOSHA 18001 규격을 2001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아울러 국제규격인 OHSAS 18001 규격을 (주)BVQI로부터 2003년 취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운영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롯데복지센터에 위치한 롯데건설(주) 안전관리팀은 박경태 부장을 축으로 "말로는 안전 말고, 행동하는 안전하자"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국내 최고를 지향하는 건설 안전관리팀이다. 롯데건설(주)의 모든 현장은 '위험성관리모델'을 통하여 개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작업공중의 진행단계,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관리를 시작으로 상호 연계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팀은 국내 실정을 고려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의식고취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기에 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관행상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는데 착안한 것으로 안전관리팀의 기본모델을 통해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사전위험성을 발굴하여 협의체 회의에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도록 하는 선진적인 현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롯데건설(주)는 협력업체 소장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4년 9월 16~17일 이틀간 협력업체 소장 880명을 대상으로 우리 협회에 위탁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자세, 가설공사 안전사고 예방대책, KOSHA 18001 현장안전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유익하다는 호평을 받은바 있어 향후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의 사기진작 및 모기업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성숙한 안전문화도, 선진수준의 경쟁력 확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롯데건설(주) 안전관리팀의 안전관리 전문가들은 최고의 생산성과 고객 신뢰도 창출을 위한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오늘도 현장점검 및 교육지원 등으로 하루해가 짧기만 하다.



#### 박경태 안전관리팀장

롯데건설 안전관리의 새로운 장을 연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의 덕장. 재해를 제로 목표달성의 견인차.



#### 문택주 과장

전향적인 건설안전맨. 모든 일엔 때가 있다.



#### 이영기 대리

모든 사람을 깨물어주고 싶어하는 사람. 다음엔 노트 대신 당신을 확~



#### 이재홍 대리

묵묵히 업무를 추진하는 소방안전 분야의 일인자. 최선을 다하자!



#### 김길진 대리

세련된 외모와 부드러움을 갖춘 행정업무의 고수.



#### 민용철 대리

다재다능한 마당발. 안전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싶다.



#### 윤지용 사원

이제 막 안전관리를 시작한 사회초년생. 모든 것이 이 미소 안에 있습니다.



#### 최소영 사원

안전관리팀의 마스크트. 업무능력에 미모가 가려지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